

엘리트 골프선수들의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 및 성향에 미치는 요인

김태규*, 차정훈**, 차광석***, 김기현****
대한체육회 태릉선수촌*, 한국체육대학교**, 건국대학교***, 한국스포츠개발원****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the Attitudes and Dispositions of Doping in Elite Golf Players

Tae-Gyu Kim*, Jung-Hoon Cha**, Kwang-Suk Cha***, Kee-Hyun Kim****
Taereung National Training Center of the Korean Olympic Committee*
Department of Community Sport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Division of Sport Science, Konkuk University***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요약 본 연구는 골프 종목의 엘리트 선수들을 대상으로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 및 성향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136명 (남 75명, 여 61명)의 골프선수들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을 통해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 및 성향과 완벽주의성향, 지각된 동기 분위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성 골프선수들은 코치의 차별대우가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 및 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경쟁의식은 부적인 영향을 주고, 여성 골프선수들은 코치의 비난이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 및 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핑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골프 종목의 엘리트 선수들에게 효율적인 반도핑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정보로 이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골프, 엘리트선수, 반도핑, 완벽주의, 동기 분위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ttitudes and dispositions of doping in elite golf players. 136 elite golfers (75 male, 61 female)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responded to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 Perfectionism in Sport Scale and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in Sport Questionnaire-2. Data that were collected analyzed by hierarchical multi regression. In male golfers, unequal recognition (UR) of coach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ttitudes and dispositions of doping, and rivalry (R) had a negative effect on that. In female golfers, Coach's criticism (CC)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ttitudes and dispositions of doping. The effective anti-doping program which refl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for elite golf players who need the anti-doping education.

Key Words : Golf, Elite player, Anti-doping, Perfectionism, Motivational climate

Received 1 July 2016, Revised 2 August 2016
Accepted 20 August 2016, Published 28 August 2016
Corresponding Author: Kee-hyun Kim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Email: kkh7811@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골프선수들은 골프종목이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접촉이 없고, 스스로 벌타 (penalties)를 부과하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 종목과는 윤리적으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한다[1]. 또한 골프는 몸이 아니라 멘탈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약물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골프계는 금지약물의 청정지역이라고 얘기하곤 한다[2]. 그러나 2015년 7월 미국프로골프 (Professional Golfers Association, 이하 PGA) 투어에서 통산 3승을 거둔 스콧 스틸링스 (Scott Stallings)가 금지약물 중 하나인 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 (dehydroepiandrosterone, DEHA)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여 90일 출전 정지를 받았고, 이는 2008년 미국프로골프 (PGA) 투어가 도핑 검사를 실시한 이후 세 번째 적발로 기록되었다[1]. 이로써 2016년 리우하계올림픽의 정식 종목인 골프도 다른 스포츠 종목과 마찬가지로 도핑검사에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Korea Anti-Doping Agency, 이하 KADA)에 따르면, 골프종목의 도핑검사는 2007년 12건, 2008년 9건에서 2013년 64건, 2014년 4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3]. 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에 따라 프로골프선수들도 한국도핑방지위원회 (KADA)의 도핑검사를 받게 됨으로써[3], 골프종목의 도핑검사 횟수는 더욱 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골프종목의 도핑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엘리트 골프선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4]에 따르면, 골프선수들의 도핑과 관련한 인지 수준이 저조하기 때문에 도핑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었다.

도핑방지를 위한 국제적 수준에서의 초기 노력은 1999년 설립된 세계 반도핑 기구 (World Anti-Doping Agency, 이하 WADA)가 도핑검사 방법 및 처벌 등에 대한 반도핑 규약을 제정하는 것이었다[5]. 또한 의학과 생리학 분야의 연구를 바탕으로 소변검사와 혈액검사 및 유전자검사를 통해 금지약물 사용을 감지하는 것이었다[5]. 초기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도핑에 대한 양성반응은 현재까지 2% 이하로 낮게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십수년 동안 금지약물 사용의 상대적 인 수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다[6,7].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여러 학자

들은 운동선수들의 도핑 행동 결정이 더 이상 금지약물에 대한 지식 여부가 아니라 금지약물 사용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와 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 반도핑 기구 (WADA)에서는 생물과학적 분석 연구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의 도핑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환경, 믿음 등과 같은 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6,8].

Petroczi & Aidman[9]은 운동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한 도핑과 같은 불법적인 행동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상황에서의 목표의 선택, 목표에 대한 몰입 (goal commitment), 목표달성을 위한 피드백 (feedback on goal attainment), 목표 평가 및 수정 (goal evaluation/adjustment) 등의 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의식적 선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동기, 자신감, 자부심 (self-esteem) 등과 같은 개인적인 성격과 관련된 요소 (personality-related factors)와 사회관계 (social relation) 등의 상황적 요소 (situational factors), 동기 분위기 (motivational climate) 등의 구조적인 요소 (systematic factors), 그리고 도핑의 가용성 (availability) 등의 환경적인 요소 (environmental factors)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10]. 그러므로 운동선수들이 도핑 행위를 시행할 경향이 있거나 관대한 성향을 보이는 것을 개인적인 요인과 상황적인 요인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그 기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1].

운동선수들의 도핑은 이를 제재함에 있어서 도핑검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반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궁극적으로 운동선수들의 도핑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12].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선수들의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 및 성향과 함께 이와 관련된 개인적 및 사회적 요인들을 고려한 반도핑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핑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골프종목의 엘리트 선수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요인인 완벽주의성향과 상황적인 요인인 지각된 동기 분위기가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 및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반도핑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유용한 정보와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 엘리트 골프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14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개별면담 및 소그룹별 집단면담을 통해 연구대상자들이 설문 문항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해 응답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 중 설문 문항에 대해 응답을 거부한 1명의 설문지와 응답이 불성실한 3명의 설문지를 제외[13]한 136명 (남 75명, 55.1%; 여 61명, 44.9%)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고,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와 같다. 설문지 응답 중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응답자의 신분이 유추되지 않도록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의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익명성을 유지하였다[1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Variables		Male	Female	Total
Level	Professional golfer	15(20.0)	8(13.1)	23(16.9)
	Amateur golfer	60(80.0)	53(86.9)	113(83.1)
Age	Adolescent	34(45.3)	44(72.1)	78(57.4)
	Adult	41(54.7)	17(27.9)	58(42.6)
Knowledge of banned substances	Known	5(6.7)	14(23.0)	19(14.0)
	Unknown	70(93.3)	47(77.0)	117(86.0)
Total		75(55.1)	61(44.9)	136(100)

2.2 설문조사

2.2.1 인구통계학적 자료 수집 및 도핑관련 설문

연구대상자들의 연령, 성별 등의 인구통계학적 자료 수집과 함께 금지약물 및 반도핑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였다. 금지약물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방법은 세계 반도핑 기구 (WADA)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 (KADA) 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지 약물 및 방법이라는 설명과 함께 기분전환을 위한 약물 (recreational drugs)은 운동 목적뿐만 아니라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흥분제 및 환각제 등의 약물이라는 설명을 추가하였다.

2.2.2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 (PEAS)

골프선수들의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 및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Petroczi[15]가 소개한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 (이하 PEAS)를 김태규와 김은국[14]이 한국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PEAS는 17문항에 대해 6점 리커트 척도 (매우 동의하지 않음 1→매우 동의함 6)를 사용하여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간 응답이 없도록 구성되어 있고, 모두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척도에 대해 응답자가 스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PEAS 점수는 최소 17점에서 최대 102점까지이고 이론적으로 중앙값은 59.5점이며[9], 점수가 높을수록 선수가 도핑에 대해 관대한 사고방식 및 성향을 나타낸다고 평가한다. PEAS의 심리측정적 특성을 분석한 Petroczi & Aidman의 연구[9]에 따르면, 모든 문항의 요인적재값 (factor loadings)은 .40에서 .66의 범위에 존재하고 내적 일관성 (internal consistency)는 .71에서 .91의 범위에 존재하여 준수한 신뢰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도 크롬바 알파 (Cronbach α) 값이 .835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2.3 Perfectionism in Sport Scale (PSS)

골프선수들의 완벽주의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Anshel & Eom[16]이 개발한 척도인 Perfectionism in Sport Scale (이하 PSS)를 김명주[17]가 한국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본 연구대상자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PSS는 ‘실수에 대한 염려 (Concern over Mistakes, 이하 CM)’, ‘개인적 기준 (Personal Standards, 이하 PS)’, ‘부모의 비난 (Parental Criticism, 이하 PC)’, ‘코치의 비난 (Coach’s Criticism, 이하 CC)’ 등 네 개의 요인에 대해 8문항씩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 (매우 동의하지 않음 1→매우 동의함 5)를 사용하였다. 각 요인별 점수는 8점에서 40점까지이고, 실수에 대한 염려 (CM)에서 점수가 높다는 것은 실수를 실패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의미하고, 개인적 기준 (PS)의 높은 점수는 자기평가를 위한 기준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부모의 비난 (PC)에서 높은 점수는 부모의 비판적인 평가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성향을 의미하고 코치의 비난 (CC)의 높은 점수는 코치의 비판적 평가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각 요인들 모두 크롬바 알파 값이 .800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18], 본 연구에서도 실수에 대한 염려 (CM, $\alpha=.789$)와 개인적 기준 (PS, $\alpha=.746$), 코치의 비난 (CC, $\alpha=.730$)은 준수한 신뢰도를 보였으나, 부모의 비난 (PC)의 크롬바 알파 값은 .378로 낮게 나타나 부모의 비난에 대한 설문항목의 응답은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2.4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in Sport Questionnaire-2 (PMCSQ-2)

골프선수들의 지각된 동기 분위기를 측정하기 위해 Newton et al.[19]이 개발한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in Sport Questionnaire-2 (이하 PMCSQ-2)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PMCSQ-2는 과제중심의 동기 분위기 (task involving climate, 17문항)와 자아중심의 동기 분위기 (ergo involving climate, 16문항)를 측정하는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 (매우 동의하지 않음 1→매우 동의함 5)를 사용하였다. 과제 중심의 동기 분위기는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 이하 CL)과 중요한 역할 (important role, 이하 IR), 노력/향상(effort/improvement, 이하 EI)을 강조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아중심의 동기 분위기는 실수에 대한 처벌 (punishment on mistake, 이하 PM), 코치의 차별대우 (unequal recognition, 이하 UR), 경쟁의식 (rivalry, 이하 R)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과제중심 및 자아중심의 동기 분위기에 대한 크롬바 알파 값이 각각 .88과 .87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18], 높은 공인타당도 (concurrent validity)도 보였다[19]. 본 연구에서도 협동학습 (CL $\alpha=.797$), 중요한 역할 (IR, $\alpha=.880$), 노력/향상 (EI, $\alpha=.755$), 실수에 대한 처벌 (PM, $\alpha=.718$), 코치의 차별대우 (UR, $\alpha=.801$), 경쟁의식 (R, $\alpha=.771$) 등 모든 변인들에 대한 크롬바 알파 값이 .70보다 높게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들은 SPSS ver. 19.0 (IBM, Armonk, NY, USA)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였고, 성별에 따른 나이, PEAS 점수, 완벽주의성향 및 지각된 동기 분위기의 하부요인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 (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라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 및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정보인 나이와 심리학적 변인인 완벽주의 성향, 그리고 사회적 변인인 지각된 동기 분위기 등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고, 독립변인들의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을 평가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이하 VIF)를 확인하였다. 모든 통계의 유의 수준은 $\alpha=0.05$ 로 설정하였다.

3. 결과

3.1 측정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Table 2> The difference of variables between male and female golf players

	Male (n=75)	Female (n=61)	t	p
Age (years)	19.69±2.77	18.10±3.43	2.999	.004
PEAS	30.93±11.75	35.77±11.08	-2.463	.015
PSS_CC	20.00±4.91	19.80±4.14	0.253	.801
PSS_CM	21.47±5.30	21.87±4.94	-0.456	.649
PSS_PS	27.33±5.47	27.03±3.90	0.373	.710
PMC_CL	3.37±1.14	3.03±1.23	1.649	.102
PMC_IR	2.94±1.25	2.34±1.38	2.656	.009
PMC_EI	3.41±0.73	3.35±0.82	0.479	.632
PMC_PM	2.13±0.80	1.91±0.76	1.638	.104
PMC_UR	2.58±0.87	2.40±0.96	1.129	.261
PMC_R	2.72±0.99	2.13±1.11	3.269	.001

PSS: Perfectionism in Sport Scale, CC: Coach's Criticism, CM: Concern over Mistakes, PS: Personal Standards
 PMC: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in Sport Questionnaire, CL: co-operative learning, IR: important role, EI: effort/improvement, PM: punishment on mistake, UR: unequal recognition, R: rivalry

측정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남성 골프선수들의 나이 (19.69±2.77)는 여성선수들의 나이 (18.10±3.43)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t=2.999$, $p=.004$), 남성 골프선수들의 PEAS 점수 (30.93±11.75)는 여성선수들 (35.77±11.0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2.463$, $p=.015$). 완벽주의성향의 하부 요인인 코치의 비난 (CC, $p=.801$)과 실수에 대한 염려 (CM, $p=.649$), 개인적 기준 (PS, $p=.701$)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지각된 동기 분위기의 하부 요인인 중요한 역할 (IR)은 남성선수 (2.94±1.25)가 여성선수 (2.34±1.38)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t=-2.656, p=.009$), 경쟁 의식 (R)도 남성선수 (2.72±0.99)가 여성선수 (2.13±1.11)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t=3.269, p=.001$), 협동학습 (CL, $p=.102$)과 노력/향상 (EI, $p=.632$), 실수에 대한 처벌 (PM, $p=.104$) 및 코치의 차별대우 (UR, $p=.261$)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2 남성 골프선수들의 PEAS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3) The results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in male golf players

	B	SE	β	t	ΔR^2	F	VIF
Step 1							
Age	0.161	0.496	0.038	0.325	0.001	0.105	1.000
Step 2							
PSS_CC	0.312	0.390	0.130	0.800	0.019	0.364	1.900
PSS_CM	0.015	0.400	0.007	0.038			2.333
PSS_PS	-0.205	0.297	-0.096	-0.690			1.372
Step 3							
PMC_CL	2.288	2.612	0.223	0.876	0.142	1.239	4.971
PMC_IR	-1.150	2.461	-0.122	-0.467			5.232
PMC_EI	2.948	3.115	0.185	0.946			2.922
PMC_PM	-3.206	3.106	-0.219	-1.032			3.426
PMC_UR	9.173	3.701	0.685	2.480*			5.829
PMC_R	-7.959	3.282	-0.671	-2.425*			5.843

*: $p<.05$, **: $p<.01$, ***: $p<.001$
 PSS: Perfectionism in Sport Scale, CC: Coach's Criticism, CM: Concern over Mistakes, PS: Personal Standards
 PMC: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in Sport Questionnaire, CL: co-operative learning, IR: important role, EI: effort/improvement, PM: punishment on mistake, UR: unequal recognition, R: rivalry

남성 골프선수들의 PEAS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인 특성인 나이와 완벽주의성향의 하부요인인 코치의 비난 (CC)과 실수에 대한 염려 (CM) 및 개인적 기준 (PS)과 지각된 동기 분위기의 하부요인인 협동학습 (CL), 중요한 역할 (IR), 노력/향상 (EI), 실수에 대한 처벌 (PM), 코치의 차별대우 (UR), 경쟁의식 (R)을 포함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일반적인 특성인 나이만을 투입한 1단계에서는 분산설명력은 0.1%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F=0.105, p=.746$). 나이에 완벽주의성향의 하부요인을 투입한 2단계에서는 분산설명

력이 2.0%로 1단계보다 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귀모형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F=0.364, p=.834$). 나이와 완벽주의성향의 하부요인에 지각된 동기 분위기의 하부요인을 투입한 3단계에서는 분산설명력이 16.2%로 2단계보다 1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귀모형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F=1.239, p=.284$). 그러나 지각된 동기 분위기의 하부요인 중 코치의 차별대우 (UR, $\beta=0.685, p=.016$)는 PEAS 점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경쟁의식 (R, $\beta=-0.671, p=.018$)은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각 독립변수의 분산팽창계수 (VIF)를 확인할 결과,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여성 골프선수들의 PEAS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4) The results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in female golf players

	B	SE	β	t	ΔR^2	F	VIF
Step 1							
Age	0.285	0.419	0.088	0.680	0.008	0.462	1.000
Step 2							
PSS_CC	0.945	0.382	0.353	2.475*	0.223	4.190**	1.484
PSS_CM	0.314	0.327	0.140	0.962			1.546
PSS_PS	0.267	0.342	0.094	0.780			1.054
Step 3							
PMC_CL	-1.730	1.695	-0.192	-1.021	0.054	1.985	2.474
PMC_IR	-0.274	1.849	-0.034	-0.148			3.744
PMC_EI	2.760	2.448	0.206	1.128			2.327
PMC_PM	-1.942	2.489	-0.135	-0.780			2.081
PMC_UR	-0.972	2.339	-0.084	-0.416			2.869
PMC_R	0.502	2.087	0.050	0.241			3.072

*: $p<.05$, **: $p<.01$, ***: $p<.001$
 PSS: Perfectionism in Sport Scale, CC: Coach's Criticism, CM: Concern over Mistakes, PS: Personal Standards
 PMC: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in Sport Questionnaire, CL: co-operative learning, IR: important role, EI: effort/improvement, PM: punishment on mistake, UR: unequal recognition, R: rivalry

여성 골프선수들의 PEAS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인 특성인 나이와 완벽주의성향의 하부요인인 코치의 비난 (CC)과 실수에 대한 염려 (CM) 및 개인적 기준 (PS)과 지각된 동기 분위기의 하부요인인 협동학습 (CL), 중요한 역할 (IR), 노력/향상 (EI), 실수에 대한 처벌 (PM), 코치의 차별대우 (UR), 경쟁의식 (R)을 포함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일반적인 특성인 나이만을 투입한 1

단계에서는 분산설명력은 0.8%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F=0.462, p=.499$). 나이에 완벽주의성향의 하부요인을 투입한 2단계에서는 분산설명력이 23.1%로 1단계보다 2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F=4.190, p=.005$). 완벽주의 하부요인 중 코치의 비난 ($CC, \beta=0.353, p=.016$)이 PEAS 점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나이와 완벽주의 성향의 하부요인에 지각된 동기 분위기의 하부요인을 투입한 3단계에서는 분산설명력이 28.5%로 2단계보다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귀모형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F=1.985, p=.055$). 각 독립변수의 분산팽창계수 (VIF)를 확인할 결과,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엘리트 골프선수들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성향과 지각된 동기 분위기가 PEAS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남성선수들의 PEAS 점수가 여성선수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선수들 경우에는 코치의 차별대우가 PEAS 점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경쟁의식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선수들 경우에는 코치의 비난이 PEAS 점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엘리트 골프선수들의 금지약물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19명 (14.0%)의 선수들만이 정보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17명 (86.0%)은 금지약물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여러 국가의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Moran et al.[18]의 연구에서 금지약물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응답한 62.6%와 국내 청소년 엘리트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태규와 김은국[14]의 연구에서 응답한 42.3% 및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은국과 김태규[20]의 연구 응답한 60.0%보다 크게 낮은 빈도였다. 이는 1999년부터 세계 반도핑 기구 (WADA) 및 각 나라의 검사기관에 의해 도핑검사가 시행 및 관리[6]되는 다른 스포츠 종목과는 달리 골프종목은 모든 메이저대회와 도핑검사를 2008년부터 미국프로골프 (PGA) 투어에서 시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한국프로골프 (KPGA)에

서 1년에 두 번씩 최대 16명에 대해서만 도핑검사를 실시한 것[2]으로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많은 엘리트 골프선수들이 도핑검사 및 반도핑 교육에 대한 노출이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국내 프로골프 선수들도 한국도핑방지위원회 (KADA)의 도핑검사를 받게 됨에 따라 국내 엘리트 골프선수들의 금지약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도핑성향을 반영한 효율적인 반도핑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도핑 성향은 스포츠 종목과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18]. 본 연구에서의 남성 골프선수의 PEAS 점수는 30.93 ± 11.75 로 나타났으며 여성 골프선수의 점수는 35.77 ± 11.08 로 나타났고, 이는 김은국과 김태규[20]의 연구에서 언급한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PEAS 점수 (39.85)와 김태규와 김은국[14]의 연구에서 언급한 국내 청소년엘리트의 점수 (38.39) 및 Moran et al.[18]의 연구에서 언급한 골프와 테니스 등과 같이 운동기술 (motor skill)이 요구되는 종목의 선수들 점수 (34.18)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국가별 그리고 종목별에 대한 엘리트 선수들의 도핑에 대한 성향차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남성선수들이 여성선수들보다 도핑에 대해 더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12,18,2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 골프 선수의 PEAS 점수가 남성 골프선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도핑에 대해 더 관대한 태도를 보였고,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우간다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Muwonge et al.[22]의 연구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은국과 김태규[20]의 연구 결과와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이렇듯 선행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각 국가의 특성일 뿐만 아니라 올림픽 등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여성운동선수들의 참여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운동선수들의 기량과 성격이 향상되고 있는 것[23]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국가와 성별에 따라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 및 성향 분석과 함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완벽주의 (perfectionism)는 자신의 운동수행능력에 대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17,18]. Flett & Hewitt[24]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스포츠 상황에서 완벽주의성향은 시험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도록 재촉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되고 있다[25]. Moran et al.[18]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성향의 하부요인 중 개인적 기준 (PS)과 코치의 비난 (CC)은 PEAS 점수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언급하였고, Madigan et al.[25]의 연구에서도 코치의 비난(CC)이 도핑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여성 골프선수들에게서 코치의 비난이 PEAS 점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완벽주의성향의 하부요인인 코치의 비난이 도핑에 대해 관대한 성향을 갖도록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핑 방지를 위해서는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코치 및 관련된 스태프들에게도 이러한 연관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효율적인 반도핑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기 분위기 (motivational climate)는 코치의 행위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스포츠활동에 있어서 성취와 관련된 학습환경이다[18,26]. 이러한 동기 분위기는 시험 또는 경쟁자를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결정하게 하고, 운동선수의 도덕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데[27,28], 특히 자아중심의 동기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낮은 도덕적 행위와 관련이 있는 반면 과제중심의 동기 분위기는 스포츠퍼슨십 (sportspersonship)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되고 있다[29]. Moran et al.[18]의 연구에서는 실수에 대한 처벌 (PM), 코치의 차별대우 (UR), 경쟁의식 (R)은 PEAS 점수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언급하였고, 중요한 역할 (IR), 노력/향상 (EI)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언급하였다. Allen et al.[29]의 연구에서는 협동학습 (CL)과 노력/향상 (EI)에 초점이 맞춰진 과제 중심의 동기 분위기는 도핑으로부터 보호작용을 한다고 주장하였고, Hodge et al.[30]의 연구에서는 코치에 의해 조절되는 동기 분위기는 도핑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남성 골프선수에게서 자아중심의 동기 분위기 중 코치의 차별대우는 PEAS 점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과제중심의 동기 분위기 중 경쟁의식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중심의 동기 분위기와 과제중심의 동기 분위기가 각각 도핑에 있어서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동기 분위기는 도핑 예방 전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세계 반도핑 기구 (WADA)는 국제적이고 효율적인

반도핑 시스템을 개발을 위해 운동선수들의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 및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과 상황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29].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도핑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골프종목의 엘리트 선수들을 대상으로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 및 성향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인 완벽주의성향과 상황적인 요인인 지각된 동기 분위기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주변의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청소년 엘리트 골프선수[14]를 성인 엘리트선수와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청소년 엘리트 골프선수에게 적용할 때에는 주의가 요구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엘리트선수와 성인 엘리트선수를 구분하여 조사하고 이를 비교분석한다면, 효율적인 반도핑 전략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엘리트 골프선수들을 대상으로 개인적 요인으로써 완벽주의성향과 상황적인 요인인 지각된 동기 분위기가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 및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엘리트 골프선수들의 14.0%만이 금지약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고 여성 골프선수들이 남성 골프선수들보다 도핑에 대해 더 관대한 성향을 보였다. 남성 골프선수들은 코치의 차별대우가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 및 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경쟁의식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성 골프선수들은 코치의 비난이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 및 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핑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골프종목의 엘리트 선수들에게 효율적인 반도핑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정보로 이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A. Zoeller. "Singh V. PGA Tour: a David V. Goliath battle" Jeffrey S. Moorad Sports Law Journal, Vol.

- 23, Iss. 1, pp. 1-26, 2016.
- [2] H. J. Sung. LPGA of Korea Official Home page, http://www.uslpga.kr/news_view.asp?ns1=28644, June 29, 2016.
- [3] Korea Anti-Doping Agency. Korea Anti-Doping Agency Home page, <http://www.kada-ad.or.kr>, June 29, 2016.
- [4] S. H. Lee, H. W. Lee. "An underlying analysis on elite golf players' anti-doping tendency" *Korean Journal of Golf Studies*, Vol. 8, No. 1, pp. 7-17, 2014.
- [5] D. F. Gucciardi, G. Jalleh, R. J. Donovan. "An examination of the sport drug control model with elite Australian athletes" *Journal of Science and Medicine in Sport*, Vol. 14, pp. 469-476, 2011.
- [6] A. Petroczi. "Attitudes and doping: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thletes' attitudes, sport orientation and doping behaviour" *Substance Abuse Treatment, Prevention, and Policy*, Vol. 2, No. 34, doi:10.1186/1747-597X-2-34, 2007.
- [7] World Anti-Doping Agency. World Anti-Doping Agency Home page, <https://www.wada-ama.org>, June 29, 2016.
- [8] J. Morente-Sanchez, M. Zabala. "Doping in sport: a review of elite athletes' attitudes, beliefs, and knowledge" *Sports Medicine*, DOI 10.1007/s40279-013-0037-x, 2013.
- [9] A. Petroczi, E. Aidman. "Measuring explicit attitude toward doping: review of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Vol. 10, pp. 390-396, 2009.
- [10] G. Zucchetti, F. Candela, C. Villosio. "Psychological and social correlates of doping attitudes among Italian athletes" *International Journal of Drug Policy*, Vol. 26, pp. 162-168, 2015.
- [11] A. Bloodworth, M. McName. "Clean Olympians? Doping and anti-doping: The views of talented young British athletes" *International Journal of Drug Policy*, Vol. 21, pp. 276-282, 2010.
- [12] A. Alaranta, H. Alaranta, J. Holmila, P. Palmu, K. Pietila, I. Helenius. "Self-reported attitude of elite athletes toward doping: differences between type of s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Medicine*, Vol. 27, No. 10, pp. 842-846, 2006.
- [13] H. J. Kim, D. H. Park. "The effects of workplace bullying on turnover intention in hospital nur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 pp. 241-252, 2016.
- [14] T. G. Kim, E. K. Kim. "Attitudes and dispositions toward doping in adolescent elite athletes" *The Korean Journal of Sports Medicine*, Vol. 31, No. 2, pp. 99-106, 2013.
- [15] A. Petroczi. "Exploring the doping dilemma in elite sport: Can athletes' attitudes be responsible for doping?"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ern Colorado, 2002.
- [16] M. H. Anshel, H. J. Eom. "Exploring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in s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 34, pp. 255-271, 2002.
- [17] M. J. Kim. "Construct validity of perfectionism propensity scale for university dancers" *The Korean Journal of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Science*, Vol. 12, No. 3, pp. 45-57, 2010.
- [18] A. Moran, S. Guerin, K. Kirby, T. MacIntyre.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doping attitudes and behaviour scale. Research report to World Anti-Doping Agency and The Irish Sports Council" UCD School of Psychology, http://www.wada-ama.org/rtecontent/document/moran_final_report.pdf, 2008.
- [19] M. Newton, J. L. Duda, Z. Yin. "Examination of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in Sport Questionnaire-2 in a sample of female athletes" *Journal of Sport Sciences*, Vol. 18, pp. 275-290, 2000.
- [20] E. K. Kim, T. G. Kim. "Attitudes and dispositions toward doping in Korean national players"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23, No. 1, pp. 215-244, 2014.
- [21] P. Peretti-Watel, V. Guagliardo, P. Verger, P.

Mignon, J. Pruvost, Y. Obadia. "Attitudes toward doping and recreational drug use among French elite student-athletes" *Sociology of Sport Journal*, Vol. 21, pp. 1-17, 2004.

[22] H. Muwonge, R. Zavuga, P. A. Kabenge. "Doping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of Ugandan athletes: a cross-sectional study" *Substance Abuse Treatment, Prevention, and Policy*, DOI 10.1186/s13011-015-0033-2, 2015.

[23] J. H. Kwak, S. H. Lee. "Direction of women's sports for gender equality"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23, No. 6, pp. 299-311, 2014.

[24] G. L. Flett, P. L. Hewitt. "The perils of perfectionism in sports revisited: Toward a broader understanding of the pressure to be perfect and its impact on athletes and dancer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 45, pp. 395-407, 2014.

[25] D. J. Madigan, J. Stoerber, L. Passfield. "Perfectionism and attitudes towards doping in junior athletes" *Journal of Sports Sciences*, Vol. 34, No. 8, pp. 700-706, 2016.

[26] S. H. Cheon, Y. G. Song. "Korean version of peer motivational climate in youth sport: development and validity"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 22, No. 1, pp. 243-260, 2011.

[27] Y. Ommundsen, G. C. Roberts, P. N. Lemyre, D. Treasure.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in male youth soccer: relations to social - moral functioning, sportpersonship and team norm perception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Vol. 4, pp. 397-413, 2003.

[28] S. G. Hwang. "The relationship between a motivational climate and self-management for elite athlet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5, pp. 493-500, 2016.

[29] J. Allen, J. Taylor, P. Dimeo, S. Dixon, L. Robinson. "Predicting elite Scottish athletes' attitudes towards doping: examining the contribution of achievement goals and motivational climate" *Journal of Sports Sciences*, Vol. 33, No. 9, pp. 899-906, 2015.

[30] K. Hodge, E. A. Hargreaves, D. Gerrard, C. Lonsdale. "Psychological Mechanisms Underlying Doping Attitudes in Sport: Motivation and Moral Disengagement"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Vol. 35, pp. 419-423, 2013.

김 태 규(Kim, Tae Gyu)



- 2003년 2월 :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체육학사)
- 2008년 8월 : 한국체육대학교 건강관리학과(체육석사)
- 2012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이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대한체육회 태릉선수촌 스포츠의학실

- 관심분야 : 스포츠의학, 체육측정평가
- E-Mail : ktk7718@gmail.com

차 정 훈(Cha, Jung Hoon)



- 1993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사)
- 1997년 8월 : 한국체육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체육석사)
- 2004년 8월 : 한국체육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이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한국체육대학교 부교수

- 관심분야 : 체육측정평가, 라켓스포츠, 코칭론
- E-Mail : jhcha8055@knsu.ac.kr

차 광 석(Cha, Kwang Suk)



- 1982년 2월 :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체육학사)
- 1986년 2월 : 연세대학교 체육학과(체육석사)
- 1991년 2월 : 연세대학교 체육학과(이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생활체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운동생리학 · 처방, 건강관리
- E-Mail : kscha1002@hanmail.net

김 기 현(Kim, Kee Hyun)



- 2003년 2월 : 건국대학교 체육학과 (체육학사)
- 2007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체육석사)
- 2016년 8월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스포츠과학과(박사수료)
- 2012년 1월 ~ 현재 :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과학실

- 관심분야 : 트레이닝, 경기분석
- E-Mail : kkh7811@hanmail.net